

태무 쇼핑몰

올해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에는 다시 온라인 쇼핑에 나서는 구매자들이 불어나는 등 작년와는 다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제전문매체 CNBC가 27일(현지 시각) 알렸다. 미국인 9명 중 약 2명 꼴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접종을 받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장 빠르기도 전년 보다는 둔화됐기 때문인 것이다.

전미소매협회의 말을 빌리면 이달 1~6일까지 7836명의 성인들을 타겟으로 인터넷조사한 결과 이미 67%의 쇼핑객이 선물을 구매하기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추수감사절부터 사이버먼데이(미 추수감사절 연휴 후 첫 목요일까지) 500만명에 가까운 노인들이 더 쇼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협회는 전했다.또 응답자의 62%는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프라이데이에 가게를 방문할 것이라고 답해 작년 53%보다 증가했다. 국제쇼핑센터협회가 지난 4월 시작한 인터넷조사에서도 미국 구매자들의 절반이 올해 선물 쇼핑을 위해 가게를 더 크게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을 것입니다. 전년 같은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45%였다.



소비자들이 가게 방문을 바라는 최대로 큰 이유는 제품을 만지고 생각할 수 있으며, 필요하는 것을 당장 얻을 수 있다는 점인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COVID-19로 인한 이동 제한의 수혜를 누렸던 전자상거래 발달률은 둔화할 것으로 **테무사이트** 보인다. 이와 관련해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올해 휴가철 미국 내 온/오프라인 매출은 지난해 대비 20% 증가한 2090억달러(약 241조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지난해 35% 발달률 예비 많이 둔화한 수치다.컨설팅업체 액센츄어는 지난 5월 미 구매자 1300명을 표본으로 인터넷조사한 결과 47%는 휴가철 자신의 지출을 경험과 서비스 선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혀졌다. 또 32~39세 소비자의 70%는 선물로 여행제품권이나 항공권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답했었다.최근 MZ세대(1980~9000년대 출생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선구매 후결제(BNPL)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매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BNPL은 먼저 물건을 사고 나중에 계산하는 방식으로 신용점수 없이도 결제가 최소한 것이 특징이다. 어도비애널리틱스의 말에 따르면 5명 중 1명은 지난 1개월 동안 BNPL 서비스를 사용한 적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의류, 전자, 식료품을 대부분 구매했었다.